

2003年度 豫算案 提出에 즈음한 道 政 演 說



존경하는 李 福 求 의장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예산안을 議會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道政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동안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議員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民選 3期」 자치도정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모아주시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道政에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200만 道民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議員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은 꽃박람회와 월드컵, 6. 13 지방선거와
「3기」 민선자치도정 출범 등 國·道政에 큰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한 해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道政이 議會와의 긴밀한 협력속에
이 뜻깊은 연도를 충남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화합과 창조”의 결정체들로 가득 채울 수 있었음에
더 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의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좋은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신나게 기업하는 忠南만들기」를 천명하고,
도정역량을 모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경제의 특성상, 하루아침에 그 규모가 눈에 띄게 늘고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입지에 있어서는, 9월말 현재로 지난해 458개업체에서
금년 623개업체로 165개업체가 늘어 같은 기간 중

36%나 증가하였으며

산업단지 가동율에 있어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가 늘고, 수출도 90억불에서 108억불로 20.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책에도
관심을 기울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사회적 참여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또한, 民選 3期の 중점 과제중 하나인 「참여 道政」을
실천하기 위해 각계각층 道民들과의 현장대화를 폭넓게
실시해왔는가 하면,
안면도 관광지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大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道民과의 대화」는 종래 시군청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형식에서 道民과 직접대화 방식으로
전환하여 현장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므로써 道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지난 10월 31일에는 민선자치 실시 이후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온 인근지역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 시켜나가기 위해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全北道와 첫모임을 갖고 지역현안과
공동발전 방안에 관하여 협력을 다진 바 있습니다.

양 道知事뿐만아니라 접경지역의 9개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상호 지역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댄채 긴밀한 협의를 한 것은 우리 地方行政史에
처음 있는 일로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매우 소중한 전기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본격적인 민선시대가 열렸다고 하나,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道에서는 「자치역량」강화를 민선3기 道政의
주요정책 과제로 정하고 여러 가지 연구작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자치제도개선
연구 포럼을 갖고,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지방선거제도,
지방의회 발전방안 등 5개분야 25개 세부과제를 발굴하여,

지난 11월 11일에는 이에 대한 개선 촉구와 함께
청와대와 국회 등 중앙의 각 요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조치는 취약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발전에 있어 첫 발걸음을 시작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지난해 우리 道는 「行自部」에서 주관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운영평가에서
「최우수道」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또다시 「최우수道」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음으로써
재정운영에 관한 가장 건실한 道임을 자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평가에서도 「대통령賞」을 수상하는 등
각종 시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왔는가 하면,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서 「3위」에 입상함으로써 충남의 저력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년 道政성과에서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역시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일 것입니다.
관람객이 당초 목표했던 72만명의 2배가 넘는 165만명이
다녀갔고, 꽃 수출 계약도 당초 200만불을 목표로 하였으나

2배가 넘는 462만불에 이르는 등 큰 성과를 거두면서
자치단체가 개최한 박람회 중 가장 「성공한 박람회」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道만의 자량을 넘어,
우리나라 박람회 역사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람회가 열렸던 「안면도」는 물론 우리 충청남도가
「서해안 관광」의 새로운 寶庫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道에서는 이같은 성과를 충남발전의 기폭제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화훼산업 육성전략」을 내실있게
수립 시행해 나가는 한편,
꽃지 「꽃축제」와 같은 행사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꽃박람회 개최 道로서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고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같은 성취와 보람들은 200萬 道民과 議員님들께서
귀중한 땀과 열정을 모아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만, 지난 4월 청양·예산지역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산불과

8월과 9월에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호우·태풍으로 적지않은 피해가 발생한 것은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議員님 여러분!

이제 40여일만 지나면 2003년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만,
국내외적인 여러 여건을 볼 때 다가오는 새해는
참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하나로 통합된 「지구촌 시대」로
빠르게 재편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무한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력적인 힘」보다는 「지식·정보」를 무기로 하는
무형의 경쟁력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념」으로 분열되고 대립되어왔던 세계의 역사가
「정보력」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한단계 더 높은
새로운 통합과 발전의 역사로 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요소는
「디지털화」와 함께 국민이 갖고 있는 「감성적인 아이디어」를
꿈을 수 있습니다.

세계는 이처럼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강력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일류 경쟁력」확보를 생존의 관건으로 인식하고 死活을 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력이 없는 국가나 개인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의 대외적 경제여건 또한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가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對이라크 공격 가능성에 따라 油價와 金融市場이 매우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하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협상 등 국가간 경제협력과 이해관계도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우리 경제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내년 2월에 새政府가 출범함에 따라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政府는 「국민 大통합」위에 정치, 경제, 문화, 복지등 선진화를 이루고,

21세기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가속화시켜 나갈 것이며,

그에 따른 국민적 참여와 역량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 또한 민선1기 출범 당시부터
일관되게 주창하고 있는 「국가의 통합성과 지방의 자율성」이
상호 존중되는 가운데,

국가이익과 지방이익의 조화를 위하여 보다 성숙되고
차원높은 지방자치 구현에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議員님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도도히 다가오고 있는 이 도전과
변화의 물결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자세와
마음가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단한 변화와 자기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면서
시대적 흐름에 뒤지지 않는 해안과 통찰력으로
밝고 희망찬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충남발전의 분수령이 될 **2003**년도를 맞아,
새해가 던져주는 시대적 의미와 과제를 똑바로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 충남이 21세기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일류 충남」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처음보다 더 처음같은」 각오와
정성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서,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道政方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基本的으로는, 「민선 3기」 자치도정이 출범할 때
천명했던 「미래인재의 양성」, 「자치역량의 강화」,

그리고 「지역경쟁력 제고」 등 3가지 역점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道政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옛소련의 작가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던
알렉산더 솔제니친은

“위대한 학자를 가진 나라는 훌륭한 정부를 하나 더
가진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인재 하나가 하는 일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사회」,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이끌어 가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도 자본도 없는 나라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키우는 것이야말로

나라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더할수 없는
귀중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도에서는, 이와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밝고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열어갈 유능한 人材를 양성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나가고자 합니다.

이와함께, 자율과 책임의 참다운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바 있는 자치제도개선 과제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지방분권연대 등
각계 각층의 뜻과 힘을 모아 단계별로 구현시켜 나가고,
道民들이 한층 더 가깝게 道政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짝 「열린 道政」을 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충남만의 가치와
발전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한층 고양시켜

세계와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을 첨단화하고, 관광과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실질적인 「참여 복지」와 道民本位の 「선진 자치행정」
실현으로 경쟁력 높은 충남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議員님 여러분!

이와같은 道政운영의 기본방향아래 내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 제1의 「매력있는 관광道」를 만들어
다시 찾고 싶은 충남을 실현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공장」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제조업보다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선진 각국에서 21세기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광패턴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道의 여건을 보면, 지난해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금강변을 따라 건설되는

「백제큰길」 1단계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데다,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개최로 그 명성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는 등 관광객 유치여건이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道에서는 2003년을 「충남방문의 해」로 설정하고,
다양한 홍보·마케팅 전략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갖고있는 모든 관광자원을 「100% 상품화」 하고,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은 「명소화」 하여

지역特化와 차별성 있는 「관광문화」를 새롭게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관광인프라의 확충이 긴요한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데 힘쓰면서

멋과 맛이 있는 음식, 쾌적하고 안락한 숙박시설,
청결하고 기분 좋은 화장실 문화개선에 도民 여러분과
함께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꽃박람회 개최 성과를 극대화하고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안면도에서 「꽃지 꽃축제」를 개최하고, 계절별로 이벤트
행사도 마련하여 안면도가 상시 관광명소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는 우리 조상의 「혼」이요 「정신」이면서,
「생활」 그 자체입니다.

이와같은 문화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후손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道民들의 문화예술 향수욕구가 충족 될 수 있도록
시설과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전국단위 「演劇祭」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38%의 공정을 보이고있는 「백제 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을 계획연도인 2005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내포 문화권」종합개발 사업도
내년까지 특정지역으로 지정 받아 2004년부터는
本格 추진할 계획이며,

문화유적 정비사업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의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정리
하기위한 「충남역사문화 연구원」을 설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식정보화 시대에 첨단 新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디지털 시대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ET(환경공학기술) 등
첨단 新산업이 향후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핵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추세에 맞추어, 道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첨단지식기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물자원 사업화센터와 축산시험장 등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고도화시킨
「축산바이오 테크노파크」와 함께,

천안·연기지역 일대에 「영상문화 산업」,
아산지역에 「디스플레이 산업」을 우리 道의
「3大 지식기반산업」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동향을 보면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쏟겠습니다.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기업들의 수출기업화를 추진하고, 「해외 박람회」 참가와 「시장 개척단」 활동도

우리道の 海外무역사무소와 연계하여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소비자 물가는 그동안 우리도가 4년 연속 「물가안정관리 우수도」를 견지해온 만큼,

이를 바탕으로 년 「3.0%」대에서 안정관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충남 농업 「5 + 3 혁신전략」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산업」이라 할 농업이 개방화 시대를 맞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FTA(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와 같은 블록간 경제협정은 일부 농가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道에서는 이와같은 농어민들의 어려움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수 있도록

忠南農業 「5大 혁신과제」와 「3大 정책비전」을 마련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에 관한 교육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교육은 백마디 말보다는 실증적으로 체험하고
익히면서, 소득과 직결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진 농업국가인 네덜란드의 IPC 체제를
도입한 실증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품목별·기능별로 멘투멘식 교육과 선도농가 체험학습
등을 실시하고,

작목반 등 생산 조직별 「시장 상품화 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정보혁신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마인드 확산 및 정보화 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부 농축산물류센타」와 「농업 테크노파크」가
함께 지원하는 농업경영정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한 정보가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혁신을 위해 생명공학연구원·벤처기업·생산자
조직이 연계한 「식물자원 개발센터」를 조성하고,

농업 테크노파크内に 「벤처농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벤처농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통혁신을 위해 「농수산물 브랜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품질인증센터」를 설치하여 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업도 벌여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농정기능도 현장중심 체제로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정책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체제를
제도화시키고, 소비자 단체 등의 농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같은 「5大 혁신과제」와 함께,
농업과 농업인, 농어촌에 초점을 맞춘 「3大 정책비전」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제고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제2차 「농림어업 경영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농정비전과 경영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금산 인삼의 세계화, 화훼산업의 육성, 쌀 名米化단지 조성 등
농업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농업인의
입장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농어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농어촌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소외계층 모두가 만족을 느끼는 실질적인
「참여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道政의 基本理念은
「人本福祉」입니다.

道民을 道政의 근본으로 하면서, 복지·안전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배려하자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일할 수 있게」라는
3大원칙을 정하여 質 높은 복지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특히, 단순한 소득이전 차원의 지원방법에서 탈피하여
자활·자립능력을 배양하는 「생산적 복지」체제로
전환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우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최소한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고,

「어르신」을 위해서는, 금년에도 道政의 역점으로 삼아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하여, 복지관과 직업 재활시설 등을
크게 늘리고, 우리道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美國 LA슈라이너 병원과의 장애아동 무료시술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우리道에서 개최되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女性」의 사회참여와 역할제고를 위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2006년까지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아이 보육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여성들을 위해 보육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 人性교육과 보육기능을 병행하는
「어린이 人性 교육원」을 설립하되,

우선, 신규 보육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설립 운영하여 보육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리고,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분야입니다.

금년 7월 15일부터 「금강수계 물관리 특별법」이
발효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금강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신규 오염원의 발생차단과 함께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을 2004년까지 수립하여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친화적 개발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환경보전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21세기형 「환경테마 공원」으로
민물고기 생태관과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한편,

천수만 철새 도래지의 생태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지역적 차원을 넘어 국제간의 협력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자치단체끼리 환경문제에 관해
공동 대처해 나가기 위해 「동북아 그린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동북아 환경협력회의」와 「한·중 환경행정 교류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적 공조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충남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서해안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도 등
서해안 연접 5개 市道가 상호 이익과 共同發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나가면서,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전략」을 비롯하여 환경오염 방지 대책,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정보·교류의 활성화,
광역교통망의 체계적 확충 등에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잘 발달된 南北軸에 비해
상대적으로 東西軸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당진~대전, 공주~서천간 노선을 2006년 말까지
개통하고,

현재 38.2% 수준에 있는 「국도 4차선율」을 2006년까지
56.2%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보령~안면간 연육교」 가설 사업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국비 45억원이 확보되어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설시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꿈의 다리를 현실로 놓는 「大役事」의 첫 단추가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본 가설사업이 본격 착수되어 가시화 될 때까지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으로써 서해안 개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산만권 신도시」 건설 사업은 그동안 1단계 역세권 지역 107만평에 대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 되었습시다만,

앞으로 개발계획 승인이 마무리 되는대로 본격 착수 추진하겠습니다.

이와함께, 200만 道民은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후보지를 결정한 후 도민 화합속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 노선 확정문제도 호남권과의 공동 연대속에 道의견을 관철시켜 나가므로써

새로운 충남발전을 위한 전기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정역량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청댐 계통 등 2개의 광역 상수도 시설과 8개소의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의 간이 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재난·재해없는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예방위주의 다각적인 조치와 함께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위험구간 개량 사업도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투명한 행정」과 「참 봉사」로

선진자치 도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道民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나 기대는 날로 다양해지고 그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환경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의 생각이나 행태를 가지고서는 오늘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모두가 사고와 행태를 전환하는 가운데 공직내부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우선, 모든 공직자가 「돈을 벌 수 있는 마인드」를
갖도록 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은 돈을 쓰는 곳이지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돈을 버는 마인드」가
필요한 것은 세가지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얼마나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했느냐이고,
또 하나는, 주민들로 하여금 얼마나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었느냐 하는 것이며

그리고, 민원 등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道民들의
시간을 얼마나 절약시켜 주었느냐 하는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道에서는 이와같은 마인드를 공직자 모두에게 심어준은
물론, 可視的 成果를 體感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신속·정확·투명의 「디지털 시대」를 맞아, 권유와 이해
설득 등 온정주의에 의한 전통적 업무처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시스템」에 의한 행정체계와 순환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의 자문·조언을 통해 실효성있는 방안을 모색한 후 道政에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인근 市道와 함께 긴밀한 협의와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광역행정체제」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함께, 道民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창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민원접수와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 혁신사업(G4C)을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야간 민원발급제도도 도입·시행하겠습니다.

「디지털 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화 시범마을」을 2004년까지 27개소로 확대조성하고, 주민정보화 교육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議員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8%가 증가된 2조 933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9.7% 증가된 1조 7,16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9% 증가된 3,765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 3기 道政이 지향하는 계획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도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계층별 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기조위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 ▶ 미래인재 양성에 1,234억원,
- ▶ 자치역량 강화에 145억원,
- ▶ 산업관광 진흥에 596억원,
- ▶ 선진농어업 육성에 3,691억원
- ▶ 문화예술창달과 체육진흥에 634억원,
- ▶ 생산적 복지구현에 4,002억원,
- ▶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삶의 터전 조성에 1,952억원,
- ▶ 지역 균형개발에 4,7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서 기획정보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道는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더욱 촉진 시켜주고, 道民들의 실질적인 복지수준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李 福 求 의장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民選 3期」 자치도정을 출범시키면서
우리 충남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서
그 중심에 우뚝 설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21세기는 분명 「충남의 세기」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충남이 이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2003년도 새해는 우리 충남
발전에 새로운 기회이자 희망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와같은 시대적 소명 위에서 200萬 道民 모두가
확고한 목표를 갖고 힘과 지혜를 모아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간다면 바로 영광의 빛이
우리를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의 빛」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아갑시다.

21세기 「희망과 활력의 일류 충남시대」 창조를 위해
땀과 지혜를 모아 앞으로 나아갑시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2. 11. 20

충청남도지사 沈 大 平